

오색으로 태어난 반가사유상의 변신

김석영의 '침묵의 소리'展

미륵반가사유상이 컬러풀한 색감으로 대중들을 찾아왔다. 김석영의 '침묵의 소리'가 7월 1일까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린다. 김석영 작가는 미륵 반가사유상을 화려한 채색을 통해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했다.

작가가 미륵반가사유상을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 김 작가는 "인간의 희노애락 등 다양한 모습을 컬러로 보여주고자 했다. 인간 내면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반가사유상의 형상에 화려한 터치로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작가가 이처럼 미륵반가사유상에 전작 하에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아한 곡선의 형상을 빌렸으며 그 육신을 구성하는 근육과 뼈와 살기죽이 아닌, 물질지듯 온몸을 휘감아 흐르는 '선'이 만들어낸 하나의 오브제다. 작가는 눈과 코, 입과 귀 심지어는 살포시 엮여진 삼산관마저도 우아하게 흐르는 곡선을 통해 그 미소를 살려내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작가는 미륵반가사유상의 아름다운 미소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



김석영 작가의 'sound of silence'

다. 그는 "미륵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를 음역한 것으로 이는 친구를 뜻한다. 그래서 미륵은 친구처럼 친밀하고 자유롭다는 뜻"이라며 "작품을 통해 미륵보살의 미소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연꽃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사찰여행을 다니며 보아온 연꽃들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홀대받는 찬불가 대중화 발원... 공연 1년

좋은벗풍경소리 '붓다콘서트'... 6월 20일 12회 공연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은 찬불가 무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진 스님의 회심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윤정원, 가수 최백건, 능인 스님, 법만 스님, 각원사 도솔합창단 등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연이은 박수에 출연진들도 흥에 겨워 열정의 무대를 펼쳤다.

좋은벗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회장 덕신)가 주최하는 붓다콘서트가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7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달 찬불가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붓다콘서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전하며 음성교의 견인자 역할을 해왔다. 1년 동안 3천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80여 팀의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붓다콘서트는 불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왔다.

"불교음악으로 포교를 해보자는 시작은 불사였습니다. 불교음악하면 어렵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붓다콘서트는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려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마련 관객과의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는 범문가요부터 트로트, 클래식(합창, 성악, 악기연주곡, 오케스트라), 힙합, 대중가요, 국악(창, 가야금 연주, 사물놀이, 판소리) 등 다양한 음악들이 선보였다. 정형 스님(소프라노), 테너 허철영 씨, 가야금 병창 지음, 원적정사 합창단 등 수많은 출연진들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붓다 콘서트는 불자 음악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덕신 스님은 말한다.

"어떤 국악인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심을 가지고 불교 음반을 만들어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연할 기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붓다콘서트가 있어 불교 음악을 공연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불교 음악인들이 원력을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해도 무대가 없고 관객

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개신교로 개종한 어떤 불자가스의 개종 이유는 교회에 가면 자신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공연장도 많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은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누가 불교 음악을 하겠어요?"

열악한 불교계 공연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말해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붓다콘서트의 12회 공연은 불자 음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양한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고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각종 단체나 사찰 공연 등에서 섭외 요청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찬불가를 대중화하고자 했던 노력도 돋

조계사 전통문화 공연장서

매달 다양한 무대로 사랑받아

찬불가 대중화와 더불어

불교음악인 발굴에 최선 다해

보였다. 공연 시작 전 '다 함께 노래를' 시간에서는 연꽃 '피어오르리', '차를 마시네', '기쁜 날' 등 찬불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 대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신 스님은 찬불가가 좀더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불가는 의식곡 이외에 사찰에서 불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동안 많은 찬불가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을 일상에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또 가수들이 설 무대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사찰 주지 스님들이 의지를 갖고 찬불가를 부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찬불가가 나와도 사라지고 말겠죠. 붓다콘서트는 이런 점에서 찬불가를 배우고 알리고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불가의 대중화를 꾀하며 시작된 붓다콘서트가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6월 20일 열린 12회 공연 장면.

이제 한 돌이 된 붓다콘서트는 걸어온 길보다는 가야 할 길이 더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공연을 이어갈 재정마련이고 그 다음이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덕신 스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붓다콘서트를 꾸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빛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리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재정확보를 통해 좀더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하고 이를 통해 특색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면 붓다콘서트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운데 붓다콘서트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마련 소외계층과 소외 지역 대중들을 위한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이에 풍경소리는 올해 하반기에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연을 계획 중에 있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고려인 돕기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부산연합신도회...영화의 전당서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의 세계평화기원 음악회가 6월 20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 다양한 무대를 펼쳤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신

도회는 "이 공연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다. 관객 분들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며 아울러 이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개최된 공연"이라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정혜숙 기자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연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정명)가 주최하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영애)가 '2013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가 6월 19일~20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불교 합창단 및 임원들이 참여 강연, 각 단체별 사례발표와 방향 공유는 물론 노래울동배우기, 레크리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 연수 기념촬영

에이션, 아카펠라공연, 새벽길 걷기명상 등을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추신수 "혜민 스님 목소리에 힐링"

슬럼프 어려움 불심으로 극복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연일 맹타를 쏟아내고 있는 불자야구선수 추신수가 6월 20일 "혜민 스님의 목소리에 힐링이 됐다"고 발언해 화제다.

추신수 선수(사진)는 6월 20일 네이버 MLB일기에서 "얼마 전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혜민 스님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부

드럽고 잠잠있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추신수 선수와 혜민 스님의 전화 통화는 박찬호 선수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불자인 박찬호 선수는 현역 시절 명상을 통해 심리안정을 꾀했으며 지난해 12월 SBS '뽕글'을 통해 인연을 쌓았다.

추신수 선수는 일기에서 "혜민 스님 책을 워낙 좋아하고 평소 꼭 만나고 싶어 선

배님께 부탁을 드렸다"며 "미국에 오실 때 직접 만나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신수 선수는 지난 4월 네이버에 실린 매거진S 이영미 칼럼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세 번 읽었는데 몇 가지 구절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며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에 상처받지 마라. 그들이 하루 1.2분 투자해서 쓴 글들에 나의 24시간이 험들어진다면 손해라는 내용이 날 많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당시 FOX스포츠 와이드인터뷰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SET 30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